전국 금석문, 탁본으로 '不變의 기록' 되다

문화재청 · 불교중앙박물관 '금석문 탁본 조사' 10주년 맞아

'탁본 장인' 홍선 스님 참여해
금석문 708점 탁본 조사 마쳐
11월 17일 성과 조명 학술대회
"제대로 된 선본 탁본도 문화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탁본(拓本)은 비석이나 기물 등의 각명(刻銘) · 문양 등을 먹에 의해서 원형 그대로 종이에 뜨는 방법이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에 전해졌고 금석학과 함께 성행했다. 기실 금석학과 탁본은 함께 발전했다. 문자의 점획이나 선 등의 미묘한 부분은 탁본으로 확인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부터 중국은 명비(名碑)의 탁본을 떠서 첩(帖)으로 만들어졌으며, '법첩(法帖)' 이라하며 서예의 명품 내지 교본으로서 활용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은 2013년부터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을 시행해왔고, 올해로 사업 시행 10년을 맞았다.

2013년 시범조사 때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불교 금석문 190점, 일반 금석문 518점 등 총 708점에 대한 탁본 조사를 마쳤으며, 이렇게 작업한 탁본들을 국립문화재연구원 누리집(https://portal.nrich.go.kr)에 공개하고 있다.

탁본, 기록의 예술

특히, 탁본 조사에는 '탁본 장인' 인 흥선 스님이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제대로 된 선보 탁본을 위해서는 많은 공력이 필요하다. 당장 탁본의 재료인 종이는 제일 좋은 한지를 사용한다.

먹물 역시 기계로 갈면 안 되며, 시중에 유통되는 먹물은 방부제가 들어있어 사용 금물이다. 오로지 좋은 먹을 하루 사용할 물량만 손으로 갈아서 탁본에 사용한다.

종이를 밀착시키기 위한 '나무 솔' 은 조사단에서 별도로 주문해서 만든 것을 쓴다. 종이에 먹을 치는 방망이는 일반적인 솜이 아닌 좁쌀에 천을 감싸 제작했다. 모두 탁본 전문가 흥선 스님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다.


지난 2018년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열린 금석문조사 사업 현장설명회에서 책임연구원 흥선 스님이 사명대사 사적비편의 탁본을 진행하고 있다.

탁본은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기도 하다. 완벽한 조건이 되도록 시간을 맞춰 작업해야 하며 먹을 칠 때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먹봉을 두드려야 한다. 1.7m 비문을 한 면을 탁본하는데만 1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먹의 농도를 조절하며 평균 5번을 먹봉을 치는 작업을 한다.

이런 10년 간의 탁본 조사로 조사단은 △비신(碑身, 비석의 몸체)의 상태에 따른 먹방망이의 재료 다양화 △비면(碑面)에 먹이 남지 않도록 하면서도 선명하게 탁본을 뜰 수 있는 최적의 종이 두께 확보 △사전 현장조사와 세척, 탁본 후 이물질 제거와 습식 세척 과정 등 탁본과 관련한 업무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10년 탁본 성과 정리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변(不變)의 기록, 10년의 두드림' 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문화재청과 불교중앙박물관의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 10년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였다.

'금석문 탁본조사 사업의 성과와 전망' 주제 발표를 발표한 흥선 스님(금석문탁본조사사업 책임연구원)은 "10년간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질적으로 우수하고 예술성을 갖춘 탁본 자료의 확보 및 집성' 을 목표로 전국의 주요 금석문 탁본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금석학 관련 연구와 가치 증진, 탁본 중요성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스님은 이어 "지금까지 전국 금석문의 10% 정도만 조사된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선본 탁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금석문 전반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 올바른 탁본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학술대회에서는 △실상사 수철화상비와 무위사 선각대사비의 탁본을 통한 판독과 해석 △양평 이행원(李行遠) 신도비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김생(金生) 집자비(集字碑) 연구 △금석문의 기본 정보, 사진, 판독문, 해석문 등을 제공하는 국립문화재연구원 금석문 DB 구축 현황과 방향 △탁본 조사 사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탁본의 시각적 예술성과 미래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탁본 조사 사업 결과물의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됐다.

경허 선사 면면 담긴 자료들 '총망라'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硏
'신출 경허자료집'(상 · 하) 간행
1년여 편찬 작업 거쳐 선봬
경허 선사 친필 등도 수록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경허 선사 자료집을 선보였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경허집편찬위원회는 "약 1년간의 작업을 거쳐 〈신출 경허선사 자료집〉(상 · 하)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전자불전연구소는 지난해 10월 6일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경허, 받을 것도 전할 것도 없는 외로운 시대의 선사' 주제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편찬위원회와 경허조사단을 구성하고 자료 수집 등 자료집 편찬에 매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경허 선사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대거 수록됐다. 경허 선사가 직접 쓴 해인총림 해인사 고승 진영 영찬(影讚)을 비롯해 경허 선사 친필인 퇴설당 편액 및 주련 등의 사진을 모아서 수록했다.

경허 선사의 친필과 기록이 일부 수록된 '해인사 방함록' 은 근현대 선원 방함록의 시초로 선방수좌들의 행적을 기록하려한 경허 선사의 의지가 담겨 있는 자료다. 경허조사단은 조사 당시 해인사성보박물관의 허락을 구하여 직접 촬영한 방함록 전문을 포함했다.

여기에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해인사에서 활동했던 행적이 있는 '초암자(草岩子) 스님의 경허어록' 전문과 초암자 필적대조자료, 현재 초암자와 필체가 유사한 이로 추정되는 덕원고경(德元古鏡, 1882~1943)스님의 필적대조자료들도 함께 수록했다.

이와 더불어 고양 원각사 성보박물관의 〈무심도인본 경허어록〉, 김천 청암사 소장 영찬, 〈완산 정혜사 신창건기〉 등 경허스님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망라했다.

편찬위원회는 자료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경허 선사와 그 제자인 만공 선사의 어록의 선집을 번역 〈정판 경허록〉과 〈만공어록〉 등을 출간할 계획이다.

〈신출 경허선사 자료집〉은 도서출판 고래에서 비매품으로 발간됐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신출 경허' 를 검색하거나, 또는 전자불전연구소 웹페이지(www.iebtc.net)에서 ebook(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생 성과품 특별전

12월 1일까지 세종시청 1층서
단청, 전각 등 50여 점 전시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박희웅)은 12월 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로비에서 2023년 세종학습관 전통공예체험교육 성과품 특별전 '전통숨結: 과거와 미래를 잇다' 를 개최한다.

전통문화교육원은 2021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설한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 의 일환으로, 서울학습관(서울 고덕동)과 세종학습관(세종시 다정동)에서 단청과 모사, 전각, 배첩 등



과 관련한 '전통공예 체험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공예 체험교육(단청, 모사, 전각, 배첩 과정)' 의 수강생들의 성과품 50여 점을 전시하며, 2022년 개관한 세종학습관에서 개최하는 첫 전시이다. 전시 관람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 토 · 일요일은 휴관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에게 전통공예와 교육성과를 공유하는 전시 개최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제13회 아카데미선그림 회원전

선아트스페이스, 11월 29일~12월 5일

우리나라 전통 그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그려온 아카데미선그림이 13번째 정기회원전을 연다.

올해 아카데미선그림전시는 두가지 콘셉트로 기획됐다.

2023년 한 해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가들의 본작품과, '문자도' 라는 하나의 주제로 각자의 개성을 녹여낸 단체적으로 구성 전시된다.

전시는 작품들이 나만의 꽃이 되고, 용이 되고, 항아리가 되고, 부처가 되며, 동자가 돼 관람객이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전시도록 대신 달력을 제작, 관람객들에게 일년 내내 감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단체작으로 구성된 '문자도' 는 본래 한자를 기본으로, 그 글자와 관계있는 고사 등의 내용을 획 속에 넣어 서체를 구성한 그림이다. 아카데미선그림은 문자도의 형식과 내용을 확장, 한자뿐


제13회 아카데미선그림 회원전 중 이순희 作.

아니라 한글과 영어, 숫자, 기호 등으로도 문자도를 만들어 냈다. 작품들은 선아트스페이스 전시 후 북촌전시실에서도 12월 6~12일 관람 가능하다. 02)733-0730 임은호 기자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 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